

조선에서의 식민지금융기구를 통한 일제의 경제적략탈책동

박 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금융자본은 조선의 공업을 독점하고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필요한 부문들만을 발전시켰으며 조선의 경제를 일본경제의 부속물로 만들었습니다.》(《김일성전집》제5권 182페이지)

일제가 식민지통치기간에 우리 나라에 침투, 부식시킨 금융기구들은 철두철미 조선의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그를 자기의 완전한 종속물로 만들며 더 많은 식민지리운을 획득하기 위한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도구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시기에 벌써 경제적침략과 략탈의 척후병으로서 자본주의 금융기구들을 우리 나라에 침투시키였다.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화폐제도의 전형을 이루는 금본위제는 수립하지 않고 발권은행을 위주로 하는 식민지금융기구들을 침투, 조작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감행함에 있어서 식민지금융기구들의 침투를 먼저 서두른것은 본질에 있어서 빈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식민지불환은행권을 유통시키는 질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질서는 오직 금융기구들을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 전기간 일제의 금융화폐제도수립과 금융기구를 통한 경제적략탈책동은 크게 세 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식민지금융체계의 수립과 운영의 첫 단계는 《강화도조약》체결 이후부터 통감통치시기까지를 포괄한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저들의 금융자본의 침투를 확대하고 금융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근대시기이후 급격히 자라나기 시작한 민족자본의 금융기구들을 압박하면서 조선의 금융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 시기 조선에 기여든 일제의 금융기구들가운데서 중추적역할을 한것은 《제1은행》이였다.

우리 나라에 일본의 《제1은행》이 기여든것은 1878년이였다. 일제는 이미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체결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과 《조일수호조규부록》에 빙자하여 1878년 3월 부산에 《제1은행》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880년 5월에는 원산에, 1882년 1월에는 인천에 각각 지점들을 설치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 저들의 《제1은행》을 침투시킨 목적은 불평등적이며 략탈적인 무역에 종사하는 저들의 상업자본에 금융상권의를 제공하여 그 활동을 더욱 조장시키며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의 재정금융체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그를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제는 《제1국립은행지점을 조선에 설치하고 금융에 착수한것은 오로지 (일본인에 대해) 대부의 편리를 도모하며 한전(韓錢—조선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상업에 리익을 주자는데 있었다.》라고 인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지반이 강화됨에 따라 《제1은행》의 경제적침략책동은 더욱 확대되였다.

《제1은행》이 감행한 가장 중요한 책동의 하나는 조선의 화폐유통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나라의 금융기구를 말살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미 《제1은행》을 통하여 청일전쟁전부터 일본의 은화와 《은행권》을 개항장과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 통용시켰으며 《무기명즉시지불수행》이라는 불환지폐와 같은 신용《증서》를 발행하여 개항지를 중심으로 무제한 유통시켰다. 그후 1902년 8월부터는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합법적으로 통용할수 있는 《제1은행권》을 마구 찍어내어 유통시키었다. 이리하여 그 발행고는 해마다 늘어나 다른 일본통화와 함께 조선의 화폐유통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1902년부터 1905년까지의 기간에 《제1은행》의 은행권발행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1902	1903	1904	1905	계
발행고	130만원	100만원	370만원	1 649만원	2 249만원

보는바와 같이 《제1은행권》은 4년동안에 2 200만원이상 유통되었으며 중앙은행권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민의 재부를 사실상 무상으로 약탈하였다.

갑오개혁이후 창설된 민족자본은행들인 《조선은행》, 《한흥은행》, 《제국은행》 등은 일제의 《제1은행》에 의하여 조장되는 화폐제도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모두 폐쇄되고말았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구말살책동은 일제의 조선강점이후 통감부설치와 함께 더욱 로골화되었다.

일제는 1906년 《천일은행》이 자금난으로 파산상태에 이르자 통감부로 하여금 25만원의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고는 그것을 완전히 저들에게 종속시켰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성은행》, 《한일은행》, 《농공은행》 등을 폐쇄시키거나 종속시켰다. 그리하여 19세기말~20세기초에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토착은행자본은 몇해 못가서 모두 폐쇄되고 조선의 금융계는 통감통치기간에 일제의 완전한 독점물로 되었다.

통감부설치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금융계를 말살하고 식민지금융기구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을 앞장에서 집행한것은 역시 《제1은행》이었다.

일제는 1905년에 《주식회사제1은행조례》를 조작하고 이 은행을 우리 나라에서의 《화폐정리》사업과 국고금취급, 은행권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로 만들었으며 한성에 둔 지점을 조선의 총지점으로 하고 그것이 전국각지에 있는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06년에는 평양, 대구, 성진, 개성, 함흥에, 1907년에는 한성 등에 지점과 출장소를 더 두고 《제1은행》으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식민지적《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05년-1909년사이에 《제1은행권》의 발행액은 1.5배이상 늘어났으며 1909년에 이 은행권은 우리 나라에서 화폐유통총액의 53%를 차지하였다.

한편 일제는 1909년에 《한국은행조례》라는것을 꾸며내고 《한국은행》을 새로 내왔으며 이 은행으로 하여금 《제1은행》이 맡아보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은행》은 한성, 부산지점과 출장소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은행》에 넘기었다. 그리하여 식민지조선에서의 최대의 금융기구였던 《제1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에 그대로 옮겨졌

다. 《한국은행》은 1909년 현재 일본국가대부금 123만원과 《제1은행》의 대부금 788만 9 000여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지점과 출장소 13개를 가지고 중앙은행격의 역할을 놀았다.

《한국은행》은 그후 총독통치시기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식민지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식민지적이며 중추적인 금융기구들을 꾸리는것과 함께 다른 여러 일본자본의 은행들도 끌어들이어 그 활동을 확대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제58은행》의 지점을 남포(1905년), 평양(1906년) 등지에 설치하고 자본금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늘이였으며 1909년에는 그것을 《제130은행》과 통합하여 활동범위와 규모를 넓히였다. 그리고 《제18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들을 1906년에는 목포와 라주에, 1907년에는 룡산, 군산 등지에 두고 한성지점을 총지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밀양은행을, 1908년에는 슈보은행을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지방에 개설하였다. 그리하여 통감통치기간 조선의 금융부분은 일제에게 완전히 종속당하게 되었으며 민족금융은 여지없이 말살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금융체계의 수립과 운영의 두번째 단계는 1910년대초 - 1920년대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일제는 오래전부터 구축하여온 식민지금융 및 화폐류통체계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와 수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책동을 앞장에서 집행한것은 《제1은행》의 후신인 《조선은행》이었다. 일제는 식민지중앙은행으로서의 《조선은행》을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지배에서 중심적역할을 하는 금융기구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화폐발행과 예금, 기타의 방법으로 화폐자본을 형성하고 집중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를 우리 나라에서 금융자본의 확대와 통화팽창을 조장하여 방대한 규모의 식민지초과리운을 긁어모으는 일본금융자본의 현지분전대로 만들었다.

《조선은행》은 식민지중앙은행, 식민지금융체계의 우두머리로서 조선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두어들인 화폐자본과 발행한 은행권을 기본자금으로 하여 대부활동을 벌렸으며 일본자본가들과 총독부를 비롯한 식민지통치기관들 그리고 여러 은행들에 대한 대부를 통하여 식민지초과리운을 빨아들이였고 점차 산업자본으로서의 활동까지도 벌려나갔다.

일제는 1918년 4월부터는 일본의 《화폐법》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화폐제도를 일본과 똑같이 만들어놓았으며 단일한 식민지화폐제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행》은 우리 나라에서 류통되고있던 《제1은행권》과 과거 조선봉건정부가 발행한 화폐들을 점차 회수하고 화폐류통을 《조선은행권》하나로 통일시켜나갔다.

당시 《조선은행》은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적권한을 가지고있었으며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재정적자를 메꾸고 재정의 출납, 《국고》의 역할을 담당하였을뿐아니라 금을 사들여 집중하고 보관하는 금략탈의 원흉으로도 되였다. 《조선은행》은 《농공은행》을 비롯한 일반상업은행들과 《동척》 금융부 및 《금융조합》 등을 감독통제하는 식민지금융체계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은행》을 비롯한 식민지금융기구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통치를 자금적으로 적극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인민의 피와 땀이 스민 수많은 물질적부를 제한없이 약탈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식민지금융체계의 수립과 운영의 세번째 단계는 1930년대초

—1945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금융기구는 파쇼화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고 그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략탈기구로, 대륙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적침략기구로 운영되었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와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1940년대초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이러한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을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며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략탈책동에 식민지금융기구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특히 일제는 1930년대이후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조선의 식민지산업을 군수원료생산에 적응하도록 편성하고 일본군수산업을 위한 원료적부속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업과 농업은 물론 식료가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분야들이 파쇼체제에 따라 침략전쟁수행을 위한데로 지향되었으며 조선인민은 모든 경제적공간들에서 일제의 경제적략탈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러한 파쇼적인 식민지경제체제확립의 배후에는 우리 인민의 피땀과 자연부원에 대한 착취로 살핀 식민지금융기구들이 틀고앉아있었다.

이 시기 금융화폐기구들은 철저히 일제의 군수산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었다. 군수산업독점체제와 련계를 맺지 않거나 그에 복무하지 않는 금융기구들의 존재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 침투, 부식시키고 운영한 식민지금융기구들은 그 침략성과 탐욕성, 파쇼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영》활동면에서 다른 식민지나라들의 금융기구들과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었다.

그 특징은 우선 모든 금융기구들이 먼저 농촌에 자금을 투자하여 관권에 기초한 식민지고물리운을 획득한 기초우에서 산업부문에 침투하였다는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부식해놓은 모든 식민지금융기구들은 레외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농촌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거기서 수많은 리운을 얻었다.

일제의 식민지금융기구들이 1910년부터 1936년사이에 우리 나라 농촌에 투자한 《대부금》의 증가정형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년 도	금 액	년 도	금 액	년 도	금 액
1910	210만 9 000	1920	7 478만 7 000	1931	3억 1 113만 7 000
1915	873만 2 000	1925	1억 5 019만 2 000	1936	4억 2 854만 4 000

보는바와 같이 26년동안에 농촌에 투자한 자금은 약 203배로 늘어났으며 일제의 금융기관들은 이것을 공간으로 하여 토지와 농산물략탈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리자를 통한 착취도 계속 증강하였다.

1927년에 일본에서 다른 제국주의나라들보다 먼저 폭발한 화폐신용공황과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은 일본의 금융체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일제는 그 후파로 인한 대부분의 결손액을 조선에 부식시킨 식민지금융기구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촌들에 들썩였다.

이 과정에 일제의 식민지금융자본의 압박밑에서 운영난으로 허덕이던 조선인은행들

의 대부분은 파산 또는 일본은행들에 통합되었으며 반대로 일제의 식민지금융기구들은 더욱 비대해졌다.

그 특징은 또한 모든 금융기구들이 식민지군수산업창설과 침략전쟁수행에 전적으로 복무하였다는것이다.

1931년 9.18사건을 도발하고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그 이후 조선에서 금속, 화학 등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높이였으며 군사전략적목적과 그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원료반출을 위한 철도, 항만 등 교통운수시설의 확장에 미쳐날뛰었다.

일제는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자금조정법》, 《물자동원계획》, 《조선금융단》 등을 조작하고 식민지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그 실현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적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에 부식시킨 식민지금융기구들의 거래내용과 운영방식도 그에 맞게 개편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식산은행》을 침략전쟁도발과 군수산업확대를 위하여 탕진되는 자금공급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일제는 1939년에 《조선식산은행》을 조선에서 석탄, 경금속, 석유 및 그의 대용품, 류산암모니아, 금, 팔프, 공작기계, 철도차량, 선박, 자동차, 전력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및 그에 필요한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개편하고 군수산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은행에 대한 불입자본액의 15배까지의 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람발한 채권을 실현하여 얻은 자금과 조선인민의 령세자금까지 강제로 끌어모아 이루어진 예금으로 오직 군수산업에 대해서만 대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자신이 직접 군수산업기업체의 경영자로, 재정금융적지배자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조선식산은행》하나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침투된 전체 식민지금융기구들의 일반적이며 공통된 경향이였다.

따라서 1942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의 군수산업에 돌려진 식민지금융기구들의 투자액은 54억원이라는 방대한 량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모두 재생산과정에서 생산물을 모조리 군수물자로 건어들인 후 류통령역에서는 빈껍데기로 맴돌게 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 침투, 부식시킨 금융기구들은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식민지적인 사회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운영된 강도적이며 략탈적인 기구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가장 악랄하고 반동적인 식민지착취기구였다.

우리는 일제가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식민지금융기구를 통한 경제적 략탈책동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똑바로 알고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일제의 죄악에 대하여 천백배의 배상을 받아내야 할것이다.